

“고령자 많은데”...지역 요양병원 안전사고 속수무책

광주·전남 입원환자 사망 잇따라
안전장치 미비·관리인원 부족 탓
요양병원 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
“고령화 속도 맞는 돌봄체계 필요”

최근 지역 요양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사고가 안전장치 미비와 관리 인원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치료·돌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동구 용산동 한 요양병원 4층에서 치매 환자 A(74)씨가 2층 난간으로 떨어져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2인실의 가로 40cm·세로 60cm 크기 프로젝트 창문(하단부를 밀어서 여는 창문)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홀로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7월에는 무안 삼향읍 한 요양병원 4층에서 B(86)씨가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병실에서 혼자 격리 중이었다. 창문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

앞선 4월 광주 북구 일곡동 모 요양병원에서는 두 노인 환자가 몸싸움을 벌이다 한 사람이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도



광주 한 요양병원 병실 창문에 방범창 등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보였다.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제지는 없었다.

지난 18일 찾은 광주 한 요양병원도 안전관리 실태에서 위험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생이 빠질 정도의 넓이로 열리는 병실 프로젝트 창문에는 기다란 봉 하나가 안전장치의 전부였다. 그마저도 얇은 탓에 틈새로 머리와 어깨 등이 충분히 넘어갔다. 안전의 역할이 아닌, 어른들이 서 있기 위한 ‘지지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창문은 끝까지 밀었을 때 약 16cm 공간이 나왔다.

병실에는 간호사·요양보호사없이 생활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휠체어를 타거나 의료 침대에 누워 있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이었다. 이따금 병원 관계자가 오갔지만, 불일이 있을 때 뿐이었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보였다. 휴게실

등에는 안전봉조차 없었다.

환자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모(51)씨는 “편찮은데 고령이어서 홀로 생활을 어려워 하신다. 가족들도 돌봄 상황이 아니라 시설을 찾게 됐다”며 “이곳에 치매 등을 앓는 어르신들이 많다. 병실 내 CCTV도 없는데 방범창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혹 무슨 사고라도 날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요양원과 달리 의료법을 적용받아 수술실 외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다른 병실의 환자 가족도 “어머니가 코로나 당시 요양병원서 욕창이 생겼다. 생각만큼 병원 관리가 세심하지 않았다”며 “이후 면회시간 마다 꼬박꼬박 오게 됐다. 요양병원에 ‘믿고 맡긴다’는 생각은

버린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내린 ‘요양시설 안전사고 판결(63건)’을 보면, △낙상 △추락사 △질식사 △폭행 △약물 △질환 발병 등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다.

지역 요양병원은 ‘안전시설 부족은 인정하지만 인력·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팬데믹을 거치면서 요양병원 생태계가 무너졌다. 환자는 급감했고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생겼다. 광주·전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평가에서도 최하위”라며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인력난 문제도 심각하다. 1인당 간병비 부담도 커 대부분 공동 간병인을 쓰는 상황이

다. 환자의 보호·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먼저 재정·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전국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요양병원 135기관 중 상위 등급 1급은 8기관으로 전국(234기관)의 3.4%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매년 전문인력 비율, 환자 처치·진료의 적정성 등 16개 지표를 표준화해 요양병원에 1~5등급을 부여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시설·서비스 질이 낫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 등 고령자 치료·돌봄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일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기관 등 돌봄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치매 등 장기요양 당사자·가족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좁은바닥’에 불과하다”면서 “고령화 속도에 맞는 노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보호 시설을 늘리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은 추가 직원 교육이나 돌봄 지식을 보급하는 등 ‘준전문가’를 육성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검정브로커’에 수사정보 흘린 의혹 검찰 수사관 ‘혐의 부인’

검정 브로커에 금품 등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의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성씨에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301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A씨의 변호인은 “성씨 청탁을 받아 탁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며 “성씨에 금품·향응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A씨에 대한 제보를 한 탁씨 형제, 성씨 등 증인 6명을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되거나 승진 청탁을 한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민섭 기자



사랑의 쌀 1004포 나눔
차량에 싣고 있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쌀 1004포 나눔 행사에서 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 후원한 쌀을 지역 복지시설과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행복지센터

나건호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재검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삼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나주시 공고 제2023-2092호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나주시 노안면 금관리 364-1번지 일원에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나주 도시관리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농지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0.
나 주 시 장

1.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가. 개최목적 :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나. 개최일시 및 장소 : 2024. 1. 10. 14:00 / 노안면 금관리 광곡마을 경로당
* 일시·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주요내용 (부문별 계획·공원·녹지 및 유원지 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금성산 생태숲 유원지	금관리 364-1번지 일원	-	증)28,575	28,575	

2.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8,575	-	28,575	100.00
소 계	21,011	증)7,564	28,575	73.53
관리지역	-	증)28,575	28,575	-
계획관리지역	18,467	감)18,467	-	64.63
생산관리지역	2,544	감)2,544	-	8.90
농림지역	7,564	감)7,564	-	26.47

* 용도지역 면적은 유원지에 한하며,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유원지만 시행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로	등급	류별	변호	폭원	가능	연장(m)	기정	총정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04	유원지-A	노안면 금관리 473-1번지 일원	일반 도로	유원지 A			전입 도로

2)공간시설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금성산 생태숲 유원지	노안면 금관리 364-1번지 일원	-	증)28,575	28,575		

다.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8,575	100.00	461	461	
시 설 소 계	21,080	73.77	461	461	시설율:73.77%
-관리시설	9,742	34.09	461	461	
-휴양시설	10,215	35.75	-	-	
-운동시설	138	0.48	-	-	
-유흥시설	985	3.45	-	-	
녹 지 용 지	7,485	26.23	-	-	녹지율:26.23%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관계도서 : 개제생략(열람장소 비치)
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12. 20. ~ 2024. 1. 3.
다. 열람장소 : 나주시 공원복지과
라.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공원복지과 공원관리팀(☎061-339-7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